

◆ 이영대 박사의 'Job' ◆ [제2회]

[이러닝 교수설계자] 이러닝 학습 기획·설계
숙련된 전문인력 찾기 어려워

○ 어떻게 준비하나

이러닝 교수설계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곳이 대학의 교육공학과이다.

교육공학과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피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 과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를 총체적으로 연구해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공학과에서는 학습자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과 교수 및 학습 환경체제를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교육환경에 실제 적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등에 대해 익히게 될 것이다.

주요 교과목으로 교수설계모형, 교수학습이론 및 산업교육방법론 등이다.

학부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육공학을 전공하면 교수설계를 배울 수 있다.

이러닝 교수설계자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한국U러닝연합회에서 실시한 'e러닝지도사'가 있다.

e러닝지도사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의 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자 안내, 진도 관리, 동기부여, 학습촉진 등 전반적인 학습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학습 전문가이다.

e러닝지도사 1급과 2급 자격이 있다.

○ 고용전망은 '밝음'

국내 이러닝시장은 연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평생학습과 자기개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러닝 이용률은 아직 27.8% 수준이지만 이러닝 이용자

의 83.2%,비이용자의 43.7%가 이러닝 이용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러닝 이용기업들의 70.4%가 이러닝교육을 더욱 확대할 의향이 있어 이러닝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현재 이러닝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40.9%는 향후 이러닝만으로 운영되는 정규 교육과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감소할 것이라 응답은 11.8%에 그쳤다.

이러닝 수요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험은 풍부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닝 교수설계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1%)이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닝 교수설계자의 향후 직업전망은 '패창'하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 온라인 교육, 교수설계 등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도전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 관련사이트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iec.or.kr>
- 이러닝산업협회 <http://www.kelia.org>
- 한국U러닝연합회(옛 사이버교육학회) <http://www.kaoce.org>
- 이러닝지원센터 <http://www.elrc.or.kr>
- 이러닝인력개발원 <http://www.kendi.or.kr>

(다음호에 계속)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본지에서는 독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수합니다.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접수처: news@eduyonhap.com

♣ 배움이 있는 세상 ♣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농사꾼... 사람 만드는 공부하자!

대학생때부터 해어린다면 10년이요, 2005년 여름 초입에 시작했던 수련관 생활만 따진다면 어느덧 오늘에 이르러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수련관 영어교사가 되었고 하루하루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온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다.

그렇게 쫓겨다녔던 네 번이나 바뀌는 사이,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북돋아 주는 힘이었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주문으로 탈바꿈 해 있었다.

나이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한 과목을 맡은 강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선생'이라는 생각에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요즘처럼 국제화 된 시기에 영어가 '선택'이라 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당연하다.

은 나라는 영어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시기에 누군가가 생각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가지다. "인성교육은 필수지만 그에 비한다면 영어교육은 선택 교과일 뿐이다."라는 사실이다.

사회 초년생, 초짜배기 강사로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시기였다.

수업이 끝나면 물만 마셔도 왠지 소란스러움에서 머리에 손을 짚고 두통에 시달렸을만큼 온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때가 있었다.

인사하며 지나가는 아이들의 미소에도 지친 심신으로 답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어느 편가부터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아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농사도 보통 농사가 아니다. 사람을

키우는 농사다. 그러기엔 나 자신은 얼마나 모자란 농부인가?

교육에 대한 지질과 그에 대한 의구심, 회의, 지난날 받았던 '교육'에 대한 기억들까지...

모두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알레로 언젠가 무단횡단하다 도로 복판에서 학부모와 눈이 마주쳤을 때를 기억한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숨기듯 슬쩍 빙긋한 미소를 보였지만, 한동안 차 없는 길거리에서 두 다리가 먼저 움찔하며 반응이 왔을만큼 민망한 아니, '쇼크'로 남아 있던 기억이 있다.

황당보도 찾아가는 버릇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어쨌거나 신호를 어겼다는 그만한 일로도 웬지 모를 자괴감이 들었던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난 지금, 한 아이의 온전한 부모가 되고서야 그 시기의 고민이 아이들로 나의 성장이었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로서 진정하게 거듭났던 시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교육자도 인간이기에 인성이 올곧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고민하는 것이야 말로. 또는 갈등하는 것이야 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교육을 진정한 교육의 모습으로 이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요, 힘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아, 내 아이들!!" 사람이 틈틈이 담긴 내 마음의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 우리, 사람을 만드는 공부를 하자!

박유미

서울시립 구로 청소년 수련관 영어강사

도서관 인식 확~ 달라졌어요

화성장안초, '책으로의 여행' 프로그램 운영



아이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화성장안초등학교(교장 전갑찬) 도움반 학생들은 화성오산교육청과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수아동과 함께 하는 책으로의 여행'이라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행사는 화성오산교육청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과자집 만들기,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월요일은 발안도서관 휴관일이라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도서관 관계자들도 이들을 전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현젤과 그레텔'이라는 인형극이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연극을 관람한 아동들에게 다소 지루하고 식상한 느낌이 들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인형극과 연극은 그 느낌과 재미가 매우 달랐다.

아이들은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이 인형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기해했고 인형이 말하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마냥 좋아하였다.

인형극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 3층 로봇체험관으로 이동하였다.

탈춤을 추는 로봇, 사람의 표정을 연출해내는 로봇부터 미래의 애원권을 자처하는 강아지

로봇까지 다양했는데, 아이들은 리모컨을 통해 직접 작동하기도 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흉내 내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관람을 했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종류의 전 시물들이 있는 전시관에서도 이런

적극성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계획하고 시설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새삼 깨달았다.

로봇체험실 관람을 마치고 가장 기대하던 과자집 만들기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동 한평에게 마련된 과자의 종류와 양이 정말 많아서 세심한 준비와 지원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다.

집의 큰 틀은 식빵으로, 접착제는 생크림으로, 장식재는 초코송이와 마시멜로우 등으로 제작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은근 슬쩍 과자를 입에 넣어가면서 자신만의 집을 만들었다.

간혹 집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지만 어찌저찌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완성품은 모두 집다운 집으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초코시럽과 눈 같은 하얀 가루까지 뿌리고 나니 정말 그럴 듯했다.

이 중에 같은 집은 하나도 없다는 강사의 말을 되새기면서 자신만의 집에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아이들은 어느 때 같으면 흥분했을 감정을 부족한 듯 막아지었다.

오후에는 구연동화를 듣고 도서관 대출증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구연동화 선생님의 실감나는 목소리와 액션에 집중하고 환호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졸린 눈을 깜빡거리며 피곤함을 호소했지만 한결같이 오늘의 체험 활동에 만족함을 표현했다.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 교사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활동을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받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든든함을 느끼면서 이후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수교사 김선영
화성장안초등학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컨테이너



한진해운의 원력주의와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앞선 맞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고객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서비스도 잘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진해운, KAL, 대한항공, Cargo Business News, KAL
고객서비스 우수 인사 선정 및 KAL과 함께 영웅으로 있는
한진해운의 맞춤 서비스와 함께 가장 행복한 고객에 되십시오.

